

‘AX 실증밸리’ 어떻게 만들어지나

# 광주시, 도시문제·시민생활 등 시로 대전환

## NEWS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 모빌리티·에너지 3000억 투자...‘국가시범도시’ 조성 AI집적단지·규제특구 지정·AI컴퓨팅센터 유치 총력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은 본격적으로 AI이 도시와 시민생활을 혁신하는 ‘도시·생활 혁신 프로젝트’이다.

광주시는 2단계로 지역 전략산업 AI 전환, AI 개발 및 도시·생활 AI 전환, AI 지원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민생활 속 실증과 기술개발을 통해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등 도시 전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통해 1단계 300개 기업, 추가로 700개 기업을 유치해 총 1000개 기업을 집적화시켜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총사업비 6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 은 광주시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데 투자한다.

광주·전남 발전동력을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간 연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자율제조,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퍼지컬 AI 기술개발 공동 인프라(AI개발·시뮬레이션·실증·데이터처리)를 활용해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와 AI 기반 분산전력망·분산에너지 운영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RE100산단 조성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2000억원은 민주주의, 교통, 돌봄, 안전 등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투자한다.

시민의 의견과 민원을 분석해 시민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도심 교통체증 해소, 포트를, 노인·영유아 돌봄 문제와 같이 도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인공지능 모델 등 시민들이 느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실증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단순 ‘기능 실증’을 넘어서 AI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 타워인 ‘AI 이노스페이스’ 공간 조성에 투자한다.

AI 연구, 교육, 창업, 실증, 상용화를 통합 지원하는 시설인 ‘AI 이노스페이스’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AI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기업들이 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퍼지컬 AI 모델을 만드는 인프라(WFM)와 국산 AI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 추진에 이어 국가 AI집적단지 지정, AI 규제자유특구 지

정,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 ‘AI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기반시설·인재·기업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조성된 만큼 ‘국가 AI 집적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AI 기본법’에 따

른 지정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의 지속적인 고 전문적인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광주시 어디서나 기업의 실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과 시설, 장비를 개

방할 계획이다.

이를 더욱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규제완화, 신속한 행정절차,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버린 AI’ 전략의 핵심 기반시설인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유치, AI집적단지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AI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즉시 입주가능한 부지(6만㎡)와 전력(120MW)을 확보했고, 현재 핵심 기업들과 함께 협의해나가는 등 초거대컴퓨팅센터 유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 5년도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광주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소버린 AI’ 전략의 핵심 기반시설인 국가 AI컴퓨팅센터도 반드시 유치해 AI 중심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5년간 인공지능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43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7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개념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에 광주는 인공지능을 지역 대표 먹거리로 선정했고 광주는 ‘인공지능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얻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외국인 근로자 인권 존중...‘차별 없는 일터’ 확산

영양에서 선박건조업을 운영하는 송은산업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조장과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나서며 주목을 받았다. 회사가 꾸준히 제공해온 한국어 교육과 기술 훈련 덕분에 역량을 인정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다.

전도의 한 김 양식업체도 코로나19 시기 무단 퇴사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 중이다. 사업주가 1인 1실 무상 숙소를 제공하고, 식문화와 고려한 식자재를 지원하며, 경력·근무 강도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세심한 배려가 장기 재직으로 이어졌다.

해남의 한 농업법인인 2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한다. 대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아 근로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실천되는 작은 변화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과 불안을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과정 중 인권침해



캠페인 영상 송은 산업

### 전남도, ‘건강한 직장문화’ 캠페인 본격 추진

우수 고용사례 영상 제작...상호 존중 문화 알려

사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널리 알리며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직장 문화’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어업·제조업 분야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 방송과 온라인, 도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배포하며, 도민 사회 전반에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과 공동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제도적 관리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2개월간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각 시·군과 유관기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도 배포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청년 주택보증금 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시, 무주택청년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하반기 100명 모집

광주시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올해부터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특히 갱신 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 및 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강화

“보험사기어차피 다들 하는 거 아니냐?”

가벼운 판단이, 무거운 처벌로 되돌아옵니다.

의료인·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